

#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연구: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Radio Documentary Program : Focused on ‘Seosan Sim’s Traditional Music’

최순희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SoonHee Choi(shchoi@pcu.ac.kr)

## 요약

본 연구는 라디오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짚어보고, 그 함의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라져가는 판소리 중고제를 조명해 라디오 다큐멘터리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을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방송매체인 라디오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첫째, 방송매체인 라디오는 음향과 내레이션, 드라마적 재연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소리저장 매체로서 기능한다. 둘째, 방송매체인 라디오는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 인물의 육성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기록물로서 기능한다. 셋째, 방송매체인 라디오는 판소리의 소리를 학술적으로 고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라디오 매체가 소리저장 매체라는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전통예술 문화이자, 무형문화재인 판소리를 기록하고 고증하는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라디오 매체 | 라디오 다큐멘터리 | 기록 | 고증 | 판소리 전승 | 중고제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radio media and its imprecations. In doing so, the researcher attempted to analyze the text of the radio documentary, which illuminated “Seosan Sim’s Sorigil,” Pansori Jung-go-je. The analysis showed that radio, a broadcasting medium, functions as a sound storage medium by utilizing elements such as sound, narration, and dramatic reenactment. Second, the radio media enabled to record the upbringing of a person through an oral interview. Finally, the radio medium plays a role in promoting the sound of Pansori academically.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radio medium functions as a means of recording and ascertaining Pansori, a traditional art culture and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utiliz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ound storage media.

■ keyword : | Radio Program | Pansori Jung-go-je | Record | Restoration of Tradition |

## I. 서론

라디오의 고유한 특성이자 강점은 무엇보다 소리저

장 매체라는 점이다. 청취자의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매체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라디오는 소리와 일상을 기록·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친밀성이라는 매체 특

\* 이 논문은 2018년도 배재대학교 교내 학술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8년 10월 12일

수정일자 : 2018년 12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2월 20일

교신저자 : 최순희, e-mail : shchoi@pcu.ac.kr

성의 효과를 발휘한다[1]. 라디오는 일상적인 매체로서 친밀성을 무기로 대중문화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주었다.

라디오 매체는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대 중후반부터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급부상하였다. 1956년 방송된 라디오 드라마 <청실홍실>은 대중의 관심을 이끄는 데 커다란 기폭제를 마련한 대표적인 예로 당시 신문은, “「청실홍실」의 히트는 우리나라에 멜로드라마가 판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는데 十年(십오년)이 지난 이제 連續劇(연속극)은 라디오 五局(오국)에 三十四(삼십사)개 TV 三局(삼국)에 二十二(이십이)개로 늘어나 이 드라마들이 地方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2]. 라디오 드라마의 성공은 곧 지상파 방송국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라디오 드라마의 인기는 대중문화로 외연을 더욱 넓혀 영화로 만들어지는 원천 콘텐츠가 되었다. 즉 라디오 문화는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대중은 라디오를 통해서 경험을 확장해 나갔다[3].

텔레비전 매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던 라디오는 2000년대 중반 들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과거 전통적 미디어인 라디오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도 PC 혹은 스마트 폰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먼저 채택하는 등 인터넷을 가장 먼저 유통채널로 채택하는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오늘 날 모든 매체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융합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보면 라디오가 얼마나 대중 가까이에 자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4]. 지상파 방송의 라디오는 이제 인터넷 웹 사이트 환경의 PC는 물론 스마트 폰 모바일을 통해 라디오 방송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라디오가 과거와 같은 방송매체로서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된 흐름 속에서도 라디오 매체는 시대적 환경을 담아낸 전통적 대중 매체로서 그 역할과 효용을 찾는 일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라디오 매체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되짚

어보고 그 의의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승과 복원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판소리 유파를 다룬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이하 소리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소리길>은 판소리 유파 중의 하나인 중고제를 내용으로 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복원을 다룬 라디오방송 콘텐츠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이 가지는 함의를 찾는 데 부합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소리 길>은 지상파 매체로는 최초로, 사라져 가는 판소리, 중고제를 조명한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1996년 대전 MBC에서 제작 편성된 <소리길>은 당시, 판소리 동편제나 서편제와 달리 계보가 단절되어, 소리가 전승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제작되었다. 충남 서산의 심화영은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개 발굴한 인물로서 사라진 중고제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국악과 학계에서 주목하던 인물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현지답사, 출연자에 대한 구술사 인터뷰 및 심층 인터뷰(in depth interview) 녹음, 내레이션, 드라마적 재연과 전문가의 고증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리길>의 전체 방송분량을 텍스트 형태로 풀어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하고자 한 <소리길>은 인터뷰에서 구술자들이 사용한 방언, 외성어까지 동일하게 담아 다큐멘터리가 구현하는 현장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완성된 ‘방송원고(script)’를 분석의 기본 자료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 원고, 스크립트는 방송다큐멘터리를 위해 대본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녹음테이프를 단순히 옮긴 녹취문(transcript)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와 같은 연구 진행을 하고자 한 데는 최근 대전 충청지역에서 판소리 중고제의 부활에 대한 활발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소리의 저장과 기록매체로서 전통적 기능을 발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전통 무형문화재의 복원과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역할과 특성을 파악하고 함의를 찾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소리저장 매체, 라디오

20세기 초 독일의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라디오에서 소리매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견했다. 문학텍스트(시-필자), 음악, 구두 형식의 대화와 말 등이 라디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것으로 파악한다[5]. 라디오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매체(a blind medium)', 즉 청각에만 의존하는 매체이므로 청각만으로 작중인물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표정, 외양, 상황들까지 청취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6]. 즉, 라디오는 소리저장 매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저장 매체라는 라디오의 특성은 미국에서 확대되었다. 1920년 대 중반 이후 미국의 라디오 보급은 급속히 증가했다.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재즈 음악, 가수와 무희들이 공연하는 버라이어티쇼 실황, 라디오 연속극 등이 미국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라디오의 대중적인 확산에는 라디오의 고유한 특성이 작용했는데 이는 귀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드라마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청자(청취자-필자)는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했고 이러한 공백은 다양한 음악과 음향효과로 극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다[7]. 이는 소리의 듣기에서 소리의 체험으로 감각-인식확장이 일어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8년 10월 30일 미국 CBS방송에서 <화성인의 습격 The Invasion from Mars>이라는 라디오 드라마가 전파를 뒀다. 드라마 진행 중간에 외계인의 침공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실제상황으로 받아들인 미국 동부지역 주민들이 집단적 공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8]. 이때 드라마 전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 방식이 내레이터(narrator)가 등장하는 '내레이션기법(narration)'이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는 거리두기, 공평, 중립적 특성을 가지며 시청자(청취자-필자)에게 절대적 신뢰감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9].

<화성인의 습격>이 불러온 사건은 라디오가 가진 소리저장 매체라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사례로서, 음성과 음향만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시각적 제한 요인이 수용자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충실히 보여준 경우이다[10].

1927년 2월 16일 조선의 경성방송국이 개국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당시 개성에서 열린 방송국 개국 직전 행사를 다룬 신문 기록을 보면, 대중이 보여준 라디오 방송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11] 같은 해 8월에는 경성방송국에서 명창대회라는 이름으로 당대의 명창인 이동백, 이화중선 등을 불러 라디오 방송을 내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1931년 경성방송국에서 조사한 라디오 청취자 통계에서도 개국 4년이 된 라디오 매체의 청취자가 일만 명을 넘었다[12]는 내용이 나와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라디오 매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라디오가 가진 소리저장 매체의 특성과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성기와 라디오 매체를 연구한 우수진[13]은 라디오 방송은 방송(공연)과 청취(관공)가 장소성을 초월하여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시 청중들에게 근대 테크놀로지가 연출해내는 신기한 스펙터클이자 일종의 버라이어티한 이벤트로 경험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소리저장이 동시성의 재현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 중에서 수집과 보존, 복원의 가치를 연구관리하는 '기록관리(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측면에서 볼 때 라디오 매체는 시청각기록물에 속한다. 시청각기록물이란 매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영상이나 음성으로 저장·재생되는 기록물을 말한다[14]. 시청각 기록물 중에서, 녹음·동영상류는 음성 및 소리를 기록하거나 움직이는 영상 형태로 생산된 시청각기록물로, 라디오의 소리저장성이 기록매체의 특성으로 확장됨을 발견할 수 있다.

1986년 2월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혁명이 발생했다. 당시 필리핀의 6개 라디오방송사가 혁명의 진행과정을 4일 동안에 걸쳐 생방송으로 내보냈고 총 61시간 33분 분량의 혁명 진행과정이 담긴 기록은 '필리핀 피플파워 라디오방송(Radio Broadcast of the Philippine People Power Revolution)'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다[15]. 이는

라디오매체가 가진 소리저장성, 기록성을 최대로 발휘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라디오의 소리 저장성에서 주목해야 할 기록 방식이 '구술'이다. '구술사(oral history)'에서는 구술을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라 지칭하며,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16]. 구술자와 대담자(연구자) 사이에서 '구술 인터뷰(oral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술이라는 방식은 내재된 힘이 있는데, 기록전승된 문헌의 역사가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을 일부 채워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17].

경성방송국에서는 개국초기인 1929년부터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전통 음악 중에서도 잡가 위주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했지만 전통의 전승 기록 측면은 아니었다. 보도, 교양, 위안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18].

한국의 라디오매체에서 보여준 선구자적인 전통의 전승 기록은 1970년대 동아방송(DBS)의 <판소리녹음>[19]이었다. 동아방송에서 제작편성한 판소리녹음은 '판소리 한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판소리연속극' 형식으로 방송 되었다. 또한 대표적인 전통의 전승 기록은 1990년대 MBC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한국민요대전-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 할 수 있다.

동아방송은 세계 유행음악의 수용에 못지않게 국악과 우리민속음악에 큰 비중을 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 그리고 계승 및 발전에 대단한 의욕을 보였다. [20]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 후반부터 1970년 후반사이 동아방송은 판소리 명창의 소리를 녹음 제작하여 방송프로그램 <국악 판소리>에 편성했다. 소리의 녹음 대상자는 김연수, 박동진 명창이었다. 동초제 판소리의 비조(鼻祖)라고 불리는 김연수 명창의 경우, DBS스튜디오에서 특별 녹음한 판소리 다섯마당 興甫歌(흥보가), 守宮歌(수궁가), 春香歌(춘향가), 深靑歌(심청가), 赤壁歌(적벽가)를 1967년 1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138회에 걸쳐 방송했다[21][20].

그 뒤 동아방송은 김연수 명창의 소리를 판소리연속극으로 기획 제작하여 1976년 1월 초부터 8월 14일까지 방송한 바 있다. 김연수 명창의 판소리연속극이 대중의 인기를 끌자 뒤이어 박동진 명창의 판소리연속극을 이

어나갔다. 박동진의 복원판소리 다섯 바탕 <속영남자가>, <배비장타령>, <옹고집타령>, <장끼타령>, <변강쇠가>는 바로 그 당시 녹음된 것이다[20].

이처럼 동아방송은 김연수, 박동진 두 명창의 소리를 녹음하고, 이를 판소리연속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라디오 매체가 한국의 전통음악이 갖는 민속학적 기록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보존과 발굴, 그리고 전통의 전승을 위해 수행한 선구적인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9년엔 전승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전민요를 이어주는-전통의 전승을 기록해주는-연결고리 역할을 한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 <한국민요대전-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가 제작되었다.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 <한국민요대전-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영국도서관의 역사적 민족지학 음향 기록물처럼 소멸되는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수집-보존-복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된 사례와 유사하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영국도서관의 역사적 민족지학 음향 기록물(1898-1951)(Historic Ethnographic at Recordings British Library)'의 50년 이상 진행되면서 언어학자와 음악학자들이 세계 각지의 구전문화를 현지에서 녹음하여 현재에 전해지고 있다[22]. 1989년부터 1995년까지 긴 기간 동안 방송이 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는 1차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7차 강원지역까지 전국에서 채록한 2235곡이라는 방대한 양의 구전민요를 CD음반에 수록하여 출시함으로써 라디오 방송이라는 일회성을 뛰어넘어 기록의 가치를 높인 사례로 꼽힌다.

## 2.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이처럼 현실 세계를 이루는 일상적 소재와 문화를 기록으로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기법에 의존하기도 한다. 20세기 초 영국의 영화감독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은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다큐멘터리는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다큐멘터리는 언어, 음악, 영상, 음향효과 등의 요소로 엮여[23] 이루어진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영화에서 출발했으나 TV와 라디오 매체라는 방송의 영역으로 그 갈래를 넓혀왔다.

따라서 라디오 다큐멘터리는 영상 다큐멘터리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어받되, 라디오 매체의 특성인 소리를 강조하는 음향, 내레이션, 인터뷰, 드라마적 재연으로 구성한다.

## 2.1 음향

라디오 다큐멘터리에서 소리는 '음향(Acoustic)'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불린다. 음향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뉜다. 배경음악(BGM: Background Music), 효과음(Effect Sound), 그리고 현장음(SOV: Sound VCR)으로 구성되어[24] 라디오 다큐멘터리의 특징을 가장 극대화하는 요소이다. 특히 배경음악은 연출자가 프로그램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24]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효과음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실제상황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또한 현장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재현을 가능케 하는데 현장에서 채록한 음악 또한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이처럼 라디오 다큐멘터리에서 음향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나타나며 풍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도구로 작용한다.

## 2.2 내레이션

영화학자 데이비드 보드웰(David Bordwell)의 '내레이션' 개념에 따르면, 지각자에게 특수한 시간 결합 효과를 미치기 위해 스토리 재료를 선택 배열 표현하는 활동이다[9]. 즉, 소리의 파장이 청각의 영역을 지나서 연출자에 의해 의미의 확장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영상 다큐멘터리에서도 내레이션은 기법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자막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반면, 라디오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션은 전지전능한 위치에 서서 역할이 명확하다. 내레이션은 정보와 정서 그리고 주제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이다[25].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황설명과 정보 전달, 정보의 재해석이나 의무부여,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25]을 불러온다. 소리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 때문에 라디오 다큐멘터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 2.3 인터뷰

라디오 다큐멘터리에서 사용하는 '인터뷰(Interview)'는 다음과 같이,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뷰 진행자가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목적을 갖고 질문조사를 하는 행위[26]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인터뷰는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첫째, 내레이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내레이션이 하나의 주장이면, 인터뷰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인터뷰가 존재할 때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실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황과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해준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특정한 상황과 공간에서,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각과 감정을 쉽게 드러낸다. 즉,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청취자에게 자신의 내적인 상태와 진실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게 된다[26].

## 2.4 드라마적 재연

라디오 다큐멘터리는 본질적으로 사실을 추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허구적 요소를 섞어 구성을 한다. 이를 '드라마타이즈', 즉 '드라마적 재연'이라 한다. 스토리텔링 기법이라 할 수 있는 '드라마적 재연'은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몇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이미 과거가 된 사건을 현재 진행되고 있듯이 보여준다는 효과가 있다. 다른 하나는, 대사가 있고 연기자(목소리 연기-필자)가 있어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는 효과[27]를 준다. 여기에서 드라마적 재연은 상상으로 지어낸 드라마와는 다르며, 사실에 기반을 둔 사건을 형상화하는 기법이다.

## 3. 판소리 중고제 연구

판소리 중고제는 고제 판소리를 이은 유파로 동, 서편제 이전의 소리로 판소리의 원형을 가장 많이 간직한 소리제작지역적 발생지를 경기, 충청으로 잡고 있다[28]. 19세기 후반인 철종, 고종 재위 시절, 이른바 '후기 팔명창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29].<sup>1)</sup>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유과 개념 가운데 가장 뒤늦게 실체를 드러낸다[29]. 여기서 논의하는 중고제는 유과와 악조를 모두 포함해서 다루는데 이보형[32]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과로서 중고제는 경기 북부와 전라도 중간 즉 경기 남부-충청도에 전승되는 판소리제'이고 악조로써 중고제는 '설령제 및 평조와 같은 악조'라고 밝히고 있다[32]. 즉 중고제를 유과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편제, 동편제와 마찬가지로 유과와 악조를 모두 지니고 있는 소리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중고제 연구는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시기는 초기인 1980년 대 중반에서 2000년 대 초반까지다. 제1세대 한국음악학자 이해구 박사가 그의 저서 『만당속채록』에서 가야금 명인 심상건을 다룬 것이 1985년이다[33]. 그러나, 심정순 가계에 대해서는 이보형과 송혜진에 의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34]. 송혜진의 경우, 가야금병창의 명인 심정순을 발굴 조명한 글[35]을 발표했다[36]. 이보형의 경우,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전국의 판소리 창자 조사를 실시했고[37], 이때 이보형은 심정순의 딸인 심화영의 존재를 목소리로 채록하였다. 이후 이보형과 같은 한국고음반연구회 소속의 배연형, 노재명이 중고제 전반에 대한 정리와 유성기음반의 발굴-수집-정리-복각 등을 이끌었다. 1992년에는 서종문, 김석배가 중고제 판소리의 특징을 연구했는데[39] 음악학에서 맨 처음 중고제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 주목한 것은 백대웅이다[40].

둘째 시기는 연구의 확장기인 2000년 대 초반이후 현재까지로 신은주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심은주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심정순-심상건-심재덕-심매향-심화영으로 이어지는 심씨 일가의 심층을 고찰했으며 최혜진은 중고제가 갖는 충청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음악학계의 연구는 현재 맥을

이으며 전승되진 않지만 존재했던 소리 유과로서 중고제가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소리는 어떤 유형으로 현존하는가를 알리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라디오 매체에서는 중고제 판소리를 전통문화 콘텐츠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중고제가 지역성을 띄고 있는 문화예술로서, 지역민과 대중이 알고 이를 전승하여 살려내고 지켜내어, 무형의 소리 유산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즉, 전승을 통한 지속적인 문화 향유와 대중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과거 유성기 음반을 통해 더 많은 청중과 만났던 전통적 시대의 라디오 매체에서, 음원이라는 '소리'에 천착하는 현재의 라디오 매체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문화예술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소리잇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리의 전승과 복원에는 대중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

### III.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텍스트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 방송프로그램은 1996년 대전MBC 특집방송의 라디오(표준FM 92.5MHz)채널에서 방송(10시10분~11시00분)된 라디오 다큐멘터리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이하 소리길)>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판소리 중고제의 전성기를 이끈 심정순과 그의 사후 유일한 직계혈육으로 남은 심화영의 존재를 추적하고, 판소리 중고제의 전승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지답사, 출연자에 대한 구술사 인터뷰 및 전통음악연구자, 연주자 심층 인터뷰(in depth interview) 녹음, 내레이션, 드라마적 재연, 자료 정리 순서로 진행하여 완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소리길>의 전체 방송분량을 텍스트 형태로 풀어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인터뷰 내용에서 구술자들이 사용한 방언, 의성어까지 동일하게 담아 다큐멘터리가 구현하는 현장감을 기록하였다.

1) 배연형은 중고제 소리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기 광명창 시대에 이르러 東·西便의 유과가 병립되면서, 경기·충청 지역의 古制 소리 또한 나름대로 변화를 겪으면서 東·西와는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소리를 형성한 것이 中古制이다"라고 밝히고 있다[30][31].

2) 판소리 창자 심화영(여), 본명 심화영, 출생연도 1913년생 서울 종로, 원자료 번호 A-365-375, 채록일시 장소 1990년 충남서산, 채록된 소리대목 단가 만고강산, 녹음시간 03:53, [표]로 정리된 것[37]을 편의상 풀어 썼음을 밝힌다. 이보영이 심화영을 만난 구체적인 날짜는, 1990년 7월 1일(추정), 3일로 나타난다[38].

표 1. 심화영의 구술 진행 내용

구술자 (interviewee)	심화영, 여(84세)
구술장소	충남 서산시 읍내 양류정 경로당 내 심화영 국악전수소
날짜	(1차) 1996년 8월 9일 (2차) 1996년 9월 6일
대담자 (interviewer)	노동은 (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최순희 (대전MBC 라디오 제작부 PD)
제작·연출· 내레이터	최순희 (대전MBC 라디오 제작부 PD)

이를 토대로 완성된 ‘방송원고(script)’로 방송대본을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채택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실시했다.

첫째, 라디오 다큐멘터리 형식이 라디오가 갖는 소리 저장 매체의 특성을 담아내는지 살펴보았다. 라디오 다큐멘터리의 내러티브 전개에서 사용한 내레이션 기법 및 드라마적 재연이 라디오 매체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작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라디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심화영의 구술을 중심으로 한 판소리 중고제의 전승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중점적인 분석은 채록된 ‘심화영의 구술’이다.

셋째, 라디오 다큐멘터리가 전통음악학과 국악계의 판소리 중고제에 대한 논의에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심층 인터뷰에 참여했던 전통음악연구자의 활동을 위주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국악계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 방송매체인 라디오가 전통문화의 ‘역사적 가치(Historical Values)’를 기록하고, 전통의 복원과 전승을 위해 구현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소리 중고제의 맥을 잇는 가계에 주목한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소리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승이 끊어지고 유성기 음반으로만 남아있던 경기·충청지역의 판소리 중고제가 기록되고 전승을 이어가는 데 라디오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과 고증장치로서 라디오의 프로그램이

중고제의 기록·전승·복원에 참여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또한 ‘소리길’에 나타나는 소리저장 매체로서 라디오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과 함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소리저장 매체인 라디오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에 나타나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이 잃어버린 소리로 알려졌던 판소리 유파, 중고제의 기록과 전승 및 복원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무엇인가?

## IV. 연구 분석 및 결과

### 1. 판소리 중고제 고증과 전승 복원

#### 1.1 판소리 중고제 공백의 구술

<소리길>에 담긴 심화영의 구술은 총 5회이며, 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노동은 교수가 인터뷰 진행을 맡았다. 심화영의 구술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의 뒤안길에서 사라진 판소리 중고제를 생생하게 형상화 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심화영의 가족관계를 고증하고 있다. 심화영은 심정순의 환갑잔치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중고제의 명인 심정순, 큰 오빠가 심재덕임을 구술한다.

심화영할머니: 이게 네 옛날에 우리 찍은 거예요. 여기서.

노동은교수: 가만있어 봐요. 심화영할머니:우리 아버님.

노동은교수: 그러면 아버님이? 심화영할머니: 환갑에.

노동은교수: 이 사진이, 심정순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 지금 보이는데. 또 한번. 그 다음에 옆에는?

심화영할머니: 여그가 인제 우리 심상건씨고.

노동은교수: 아, 어, 이 뭐, 후리후리하다.

심화영할머니: 이 분은 우리 오빠 되고. 큰 오빠고.

노동은교수: 큰 오빠? 심화영할머니: 심재덕씨

노동은교수: 그리고 이 분은요? 심화영할머니: 나고.

둘째, 아버지 심정순에서 사촌 심상건으로 이어지는 중고제의 흐름과 맥을 고증하고 있다.

심화영할머니: 그제 우리집이서 부모 일찍 돌아가서 가지고 우리집이서 크신 양반이지.  
 노동은교수: 어, 심상건 선생님? 사촌오빠가?  
 심화영할머니 >>예예. 그니께 우리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데리고 있었대요, 키우다시피 해서.

심화영의 구술은 2010년 신은주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는데, 심상건이 7세에 부친이 별세하고, 모친은 그보다 일찍 별세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심정순 가정에서 함께 지냈다는 심정순-심상건의 음악적 사제관계를 설명해주는 근본적인 조건이 밝혀진다. 이로 인해, 작은 아버지인 심정순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전라도 음악과는 매우 다른 독특함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도 뒷받침하고 있다[41].

<소리길>은 심화영의 구술, 전통음악연구자와 연구자의 심층 인터뷰로 판소리 중고제에 대한 기록을 찾고, 고증을 시도한다. 프로그램 내용으로 판소리 중고제의 공백을 채운다는 의미가 구현되고 있다. 구술 생애 사라 지칭할 수 있는 심화영의 구술은 20세기 초 판소리 중고제 '계보 찾기'와 중고제 '전승'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소리길>은 하나의 '기록물(레코드 records 또는 아카이브즈 archives)'로서 가치를 가지고 사라져 가는 소리체인 중고제에 대한 기록과 저장, 이를 넘어서는 복원의 효용과 가치를 조명하는 데 <소리길>의 제작의도를 드러낸다.

## 1.2 발견된 현재의 기록과 복원

<소리길>에 출연한 전통음악연구자들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심화영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판소리 중고제의 현재성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동편제도 그 많은 유형들이 대부분 없어졌거든요. 서편제도 그 많은 유형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 동편제나 서편제는 부분적으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나 이 경기 충청 소리는 완전히 끊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충청도 소리제를 부

르는 그 할머니를 발견했다는 거는 굉장한 아주 그냥 보물을 찾은거 같죠.”(문화재전문위원 이보형)

“동편제는 거뜬거뜬 얹어침을 별로 안하고 그러는데 서편제는 비교적 부침새를 꼭 짜고 이끌어갑니다. 마치 초서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동편제는 마치 해서처럼, 하는데. 중고제는 유창하죠. 그래서 마치 행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문화재전문위원 이보형)

“소리가 호들갑스럽지 않고 가볍지 않고 매우 점잖으면서도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소리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계보를 갖고 있는 심화영 할머니의 소리를 채록할 수 있는 건 큰 행운이 아닌가. 중고제를 연구하는데.”(동남보건전문대 이규호 교수)

“그 다음에 전승시켜야하는 작업이,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승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은. 그래서 이제 할머니로 하여금 소리를 끊임 없이 찾도록 하고, 가르쳐야죠. 가르치면서 소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지정을 안 하면 누가 배우려고 해.”(문화재전문위원 이보형)

<소리길>에서 이보형과 이규호의 인터뷰는 중고제 판소리의 현재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보형의 언급대로, 심화영은 1996년 <소리길>이 방송된 후인 2000년 충남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지정된다. 또 예인 가문으로서 심씨 일가가 보유한 문화가 기록되고 전승과 복원되는 경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판소리 중고제의 고증과 전승, 복원에 기여하며 지역 특성이 담긴 판소리로 확장되도록 하고 있다. <소리길>이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서 소리라는 무형의 문화유산은 기록·전승·복원에 기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1.3 지역 특성이 담긴 고제 판소리의 확장

<소리길>에서는 심씨 일가 음악의 중요 인물인 가야금 명인 심상건에게 가야금을 배웠던 황병기의 회고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통음악연구자들의 심층 인터뷰로 이루어지며 심씨 일가의 활동 분야가 다양하게



규명되고 있다.

“어..원손의 농현이 굉장히 좋았고 국립국악원의 전신이었던 구왕궁의 아악부, 아악부의 유일한 가야금 산조 악사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유일한 가야금 산조 악사로 영입할 정도에 대가였었고, 또 물론, 일정시대 때에 나온 레코드판도 있고.” (이화여대 황병기 교수)

<소리길>에서 황병기는 자신의 스승 심상건이 가야금 산조의 대가였음을 구체적으로 고증한다. 이는 심씨 일가의 활동범위의 폭이 넓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후 심정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산조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이 있었음이 확인된다[42].

또한 <소리길>은 심정순 일가의 판소리 중고제가 충청지역의 문화적 특색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내포제 소리 또는 내포제 문화라고 당시 이보형 문화재 전문위원은 지적하고 있다.

“심정순과 심상건은 충청도 소리제. 중고제라고 합니다만 이를테면 내포제 가야금 병창, 내포제 판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음악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재전문위원 이보형)

이러한 이보형의 해석은 2000년대 들어서 신은주, 최혜진의 후속 연구로 이어졌다. 신은주에 따르면, 심정순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넓은 권역을 차지하고 있는 내포지역 출신으로서 그의 음악에는 충청남도 고유의 내포지역 음악 어법과 경기 지역에 인접한 만큼 경기 향토 어법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41]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내포권의 소리를 대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심정순의 판소리로 평가하는 것이다[43]. 신은주와 최혜진의 연구에서 중고제의 충청지역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이 <소리길>은 심정순 일가의 소리를 비롯하여 같은 서산 출신인 방만춘, 고수관, 김봉문 명창이 포함되어 있는 내포제 소리가 기존의 서편제, 동편제와는 구별되는 판소리의 원형으로서 그 확장과 다양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2. 소리저장의 기본요소: 고증과 기록

### 2.1 음향: 현장음과 배경음악

국악에서는 가창을 소리와 노래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리로 표기였는데, 소리는 당시 현장녹음된 심화영의 소리(3회)와 KBS라디오 방송의 심상건(1회)과 유성기 음반(SP)의 심매향의 소리(1회)로 총 5회에 걸쳐 나온다. <소리길>에 저장된 심씨 일가의 소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 중에서

심화영	현장녹음	1996년 8월 6일	방송분량	1회(53") 2회(28") 3회(53")
심매향	유성기 음반(SP) 일죽조선소리반	1920년대 중반		1회(38")
심상건	KBS 라디오 <옛 국악인을 찾아서>	1963년		1회(45")

[표 2]의 심화영-심매향-심상건, 이들의 소리는 모두 각기 다른 시기에 녹음된 것이다. 그러나 라디오 매체의 편집기술을 활용하여 <소리길>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접할 수 있다. 라디오 매체가 지닌 소리저장은 단순히 ‘소리를 모아둔다는 차원’이 아닌 ‘소리를 편집해서 모아둔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동시성의 재현(represent of simultaneity)’이 일어난다. 심화영-심매향-심상건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는 청각에서 제시되지 않은 보지 못한 영역을 채우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게 된다. 특히 유성기 음반에서 나오는 잠음 섞인 심매향의 소리는 일제강점기 근대화시기라는 시공간으로 청취자의 감각을 이동시킨다. 1960년대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심상건의 소리 또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심화영의 토막소리는 유성기 음반의 판소리 중고제를 넘어서 살아있는 소리로 들려준다. 라디오 다큐멘터리 <소리길>에는 방송시간 총 26분 42초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향(현장음/배경음악)이 나오며 이때 나오는 현장음/배경음악은 전통음악인 국악이다. 이와 같이 심화영-심매향-심상건의 개별화 된 소리는 국악이 담긴 현

3) 방송분량 시간 측정에서 심화영, 심상건, 심매향의 소리에는 내레이션 일부가 섞여 있다. 이는 라디오 다큐멘터리의 형식적 특징이다.

장음과 배경음악, 즉 라디오의 소리저장 요소를 구현하고 있다. 사라지는 유파인 중고제 판소리가 라디오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음향(현장음/배경음악), 내레이션, 드라마적 재연 등의 소리저장의 기본요소로 세분화되어 재현되고 있다.

### 2.2 내레이션

각각 분리되어 있던 심화영-심매향-심상건의 소리는 내레이터가 등장한 이후부터 심씨 일가의 소리로 이어지며 '혈연적 가계도(genealogy)'라는 내러티브가 형성된다. 내레이션의 거리두기에 의해, 단편적이었던 소리들이 재구성되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시공간이 청취자의 지각영역에 구축된다. 이를 '서사의 구축(building narrative)'이라 한다.

<소리길>에 저장된 내레이션의 내용과 역할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중에서

회	내용	역할
1	심정순의 딸 심화영, 서산 소개	심화영의 존재 → 역사성 부여
2	사진 속 심화영, 아버지 심정순	심화영과 심정순의 관계성 부여
3	심정순, 심재덕, 심매향, 심상건 소개	심씨 집안의 가계도 형성
4	심상건 소개	1960년대 심상건의 위상 설명
5	심화영과 심상건의 관계 소개	친족 관계 설명 → 가계도 형성
6	심화영과 아버지 심정순 소개	심화영의 가계도 형성
7	심정순의 일제강점기 활동 소개	심정순의 위상 → 역사성 부여
8	심정순의 일제강점기 활동 소개	심정순의 위상 → 역사성 부여
9	심정순 소리 담긴 유성기 음반 발굴	심정순 소리의 고증
10	중고제의 특징 소개	심정순 소리 중고제의 고증
11	중고제와 심씨 집안의 관련성	심정순 소리의 중요성
12	중고제 맥을 잇는 심화영의 존재	중고제에서 심화영의 중요성
13	심화영의 오빠 심재덕의 활동상	1930년대 근대생활문화상 설명

14	심재덕의 활동상	심재덕에 대한 고증
15	가수 심수봉 소개	심수봉의 가계도 발굴
16	심수봉과 심매향의 관계 소개	심수봉의 가계도, 심매향 소리 발굴
17	심매향의 존재 소개	중고제에서 심화영의 위치 중요성
18	서산에 있는 심정순 기념비 소개	심정순에 대한 안타까움
19	심씨 일가의 가수 심수봉	심수봉의 가계도 재차 확인
20	심정순 소리 전승의 중요성	심정순의 소리 상징성 부여
21	심화영 소리의 안타까움	중고제 복원과 전승의 중요성
22	유일한 생존자 심화영	중고제에서 심화영의 위치 중요성
23	전통의 전승과 심정순	중고제 복원과 전승에 대한 당 위성

[표 3]에 나오는 내레이션을 통해 심씨 집안의 가계도와 중고제에 대한 고증과 기록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내레이션이 심정순의 활동을 고증하고 있다.

“심화영의 아버지 심정순이 활약하던 1900년 무렵은 서울의 막극장을 통해 공연예술이 터전을 잡으려던 때였습니다. 심정순이라는 이름이 처음 공연기록에 보이는 것은 1908년 12월부터 그가 주로 활동하던 무대인 장안사라는 극장이었습니다.”

“심정순은 1913년 무렵부터 개성, 의주, 평양, 진남포 등 이북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공연단장이 되어 활동합니다. 국악이 무대예술로 올라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원하던 대중에게 장안사 공연 단장 심정순은 가야금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여서 큰 호응을 얻습니다. 한 신소설 작가 이혜조는 심정순이 구술한 판소리 정본을 매일신보에 연재해 심정순이 당시 가장 인기 있던 판소리 명창임을 실감케 합니다.”

[표 3]의 내레이션 7, 8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정순이 당시 국악의 판소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한다. 또한 판소리 중고제 예인 집안으로서 심씨 집안의 출발이라는 역사성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내레이션이 심정순의 자식들인 심재덕과 심매향의 활동을 고증하고 있다.

“어든이 넘은 심화영 할머니가 큰 오라버니라고 말하는 이는 민속음악채보와 국악이론강의로 이름이 높았던 국악연구자 심재덕입니다. 심재덕은 아버지 심정순이 돌아가신 이듬해 1935년 당시 스물 한 살이던 꽃다운 동생 심화영과 청진, 진남포 등의권번에서 소리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빠의 초청으로 오게 된 이화중선, 박록주, 박초월 등을 만났다는 심화영 할머니.”

“해방이 되면서 심화영의 큰 오빠 심재덕은 가야금, 판소리 등의 이론에 몰두했고 대한국악원 이사와 이화여대 강사를 역임합니다.” “‘그때 그 사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 밖에 난 몰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심수봉은 심재덕의 막내딸입니다.”

[표 3]의 내레이션 13, 14, 15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재덕의 1930년대 활동과 해방 이후 활동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재덕의 딸이 가수 심수봉임을 확인한다. 심수봉은 <소리길>을 통해 자신의 고모가 심화영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

“국악집안의 소리를 대물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심수봉. 오늘의 가수 심수봉처럼 1900년대 초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은 큰 고모 심매향입니다. 장안사의 간판스타였던 아버지 심정순과 함께 빼어난 소리와 미모로 커다란 인기를 얻었던 심매향은 가야금과 병창에 재질이 있어 어린 나이에 공연도 하고 음반도 취입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심정순에게 소리를 배워 전성기를 누렸던 심매향은 아깝게도 스무 살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일곱 살 때 큰 언니 심매향이 급체로 쓰러진 (생략)”

[표 3]의 내레이션 16, 17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1900년대 초 음반취입을 할 정도로 심매향이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는 것과 때 이른 죽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내레이션은 심정순의 조카인 가야금 명인 심상건의 활동을 고증하고 있다.

“(생략) 사촌오빠 심상건은 1960년대까지도 커다란 활동을 벌이며 가야금 연주자들의 흠모의 대상이 됐던 명인입니다.”

“황병기 교수는 어렵게 구한 그의 스승 심상건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1963년 심상건의 나이 일흔 넷에 제작된 KBS 방송자료입니다.”

“심상건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자 작은 아버지 심정순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음악의 뿌리는 바로 심화영의 아버지. 조선 말과 일제초기에 두드러진 활동을 벌인 심정순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심상건의 가야금 병창은 심화영의 아버지 심정순이 불렀던 부드럽고 경쾌한 창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 3]의 내레이션 3, 4, 5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상건의 활동, 심상건의 제자 황병기, 심상건이 심정순 집에서 머물게 된 사연, 심상건이 심정순의 창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상건이 심정순의 중고제 계보 안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넷째, 내레이션이 중고제의 실체에 대해 고증하고 있다.

“예로부터 소리 잘하는 이들이 모여들던 서산. 조선 조 판소리 명창 김창룡과 이동백도 서울을 오고가는 길에 서산의 소리명창과 자주 어울렸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서산에서는 소리 자랑을 말하는 소리꾼의 자부심이 있는 고장이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서편제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동편제와는 또 다른 경기 충청도 지역에서 불려지던, 밝혀지지 않은 소리제인 중고제.”

“경기충청지역의 명창들이 불렀던 소리. 서편제와 동편제와는 또 다른 맛을 지니고 있는 중고제. 그 열쇠를 풀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심씨 집안의 소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정순의 소리업적을 기리는 일도 그 전승 맥이 끊긴다면 서산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 포제 소리의 훌륭한도 증명할 수 없다고 (중략)”

[표 3]의 내레이션 1, 10, 11, 12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중고제의 기반이 충남 서산이었으며 중고제를 내포제 소리라는 또 다른 명칭으로 지칭했고, 그 중심에 심

정순을 정점으로 한 심씨 집안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소리길>에 나오는 전체 23회에 해당하는 내레이션 분석을 통해 심씨 집안의 혈연적 가계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음향요소인 내레이션이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고제 판소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연구자의 고증으로 연결돼 라디오 매체의 소리저장이라는 특성과 고증과 기록으로써 확장성을 갖는다.

### 2.3 드라마적 재연

1920년대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소프 오페라(Soap opera)'는 라디오 매체에서 배경음악, 다양한 효과음 등을 사용하는 드라마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형식을 라디오 다큐멘터리에서는 '드라마적 재연'으로 나타낸다. <소리길>의 전개에서는 남녀 성우의 목소리로 3회 등장하여, 적은 분량이지만 심정순의 공연활동의 당시를 고증하고 현실로 기록된 내용을 전하는 장치로 드라마적 재연을 사용하고 있다. <소리길> 방송원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4년 4월 18일 매일신보기사. 소재목 심정순 일행의 소식.” (여성성우 음성)

“장안사 순회 때 심정순 일행은 지나간 6일 평안북도 의주로 내려가서 공회당에서 연극을 흥행하는바 관람자의 호평을 얻어 인산인해를 이룬다더라.” (남성성우 음성)

“김복문, 심정순 두 배우의 잡가와 가야금은 참 명창인고로. 기생일동이 다수 금액으로 창 정하였다더라.” (남성 음성)

위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의 대화는 모두 성우의 목소리다. 1914년 4월 18일자 매일신보 기사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여 여성과 남성이 번갈아 읽으며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여성과 남성은 단순히 신문기사의 내용을 읽지 않고 당시의 말투와 어감을 살려 신문기사의 내용을 읽도록 하였다. 두 성우의 목소리 연기를 통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를 현재화 하는 '동시성의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1910년대 심정순의 활발한 공

연활동과 그의 높은 인기를 생생하게 형상화해서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 3. <소리길>과의 동행: 학계·국악계

배연형은, 중고제가 일제강점기에 이미 구식 소리라고 해서 더 이상 배우는 사람이 없어 자연스럽게 도태된 소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배연형에게 있어 중고제의 시간성이란 그의 초기연구 서문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유성기음반에 나타나는 아주 낮은 소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비롯되었다.”[30]고 밝히고 있다. 이보형의 연구가 예인들의 소리를 직접 녹음하는 데 있다면, 배연형 연구의 특이성은 유성기음반에 담겨있다. 이러한 점에서 녹음과 유성기음반은 소리저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닮아 있다. 실제 배연형은 중고제, 이동백의 소리에서 동편제의 특징을 발굴한 바가 있으며 연구와 조명을 통해, 중고제가 지역의 소리로서 판소리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29]고 주장하는 것의 토대가 되고 있다. 유성기음반의 소리가 판소리 중고제의 시간을 이어주는 장치로, 이를 통해 전승과 복원이 이루어지고 판소리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문화의 다양성으로 진전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선다.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과 견해는 <소리길>이 옛소리의 기록과 고증, 전승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도 개입 하였으며 방송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학술활동과 판소리 중고제 복원을 위한 발표를 지속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소리길>에서 구술 인터뷰를 이 끝했던 노동은의 경우는 심씨 일가의 존재를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도록 이끄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후 심씨 일가를 방송매체의 장에서 주목하도록 이끌게 된다.

“지금 우리 심화영 선생님은 시간하고 싸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저희 대학으로 모시려고해요. 모셔서 오늘 같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호를 해야 되고 남길 것이냐 라를 세미나를 하려고 해

요.”(목원대학교 노동은 교수)

<소리길>이 방송이 된 직후, 목원대 노동은 교수의 주도로 한국음악 프로젝트2000 제1회 전국대회 ‘심정순 가계와 한국음악’ 행사 및 학술회의가 1996년 11월 9일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전시회 및 중고제 판소리의 거장 심정순의 막내딸 심화영으로 하여금 가야금 병창 복원연주회를 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이 세미나에서 이보형은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을, 배연형은 “심정순 일가의 음반”을, 이에주는 심화영의 승무를 연구하여 발표하였다[44]. 이 학술행사는 심정순 일가와 판소리 중고제에 대한 학계의 후속 연구와 소리 전승의 토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리길> 방송 이후, 프로그램 내에서 중고제 판소리에 대해 심층 인터뷰로 고증을 했던 연구자들(이보형, 배연형, 노동은)은 이후 중고제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더욱 심도 깊게 조명해 왔다.

이보형과 배연형의 중고제의 ‘시간성(시간성의 이어짐(continued of time))’과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논의가 그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이보형과 배연형이 <소리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고제를 시간성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고제 관련 행사는 형식과 내용이 다채로우며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학술세미나부터 판소리 발표대회, 경연대회, 전통가무악 공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지역도 충남(서산, 홍성, 부여), 충북(진천), 대전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중고제에 대한 관심의 범위가 충남 북, 대전으로 확장 추세를 보인다. [표 5]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소리길>은 라디오 매체로서 처음으로 심화영의 존재와 중고제를 알렸고, 외부에서 이를 조명하도록 그 길을 넓혀주는 시작점이었다 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소리길> 방송 이후 모두 TV프로그램에서 심화영과 중고제를 다루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은 처음이자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표 4. 중고제 관련 행사

일시	행사	장소
1999~2016	심화영 중고제 판소리 발표회(총 10회)	충남 서산
2010.11.5	서산과 내포제 문화 “내포소리 중고제 학술제”	충남 서산
2013. 8. 27 ~9,8	심정순 탄생 140돌 행사 공연 및 “근현대 전통예인 심정순가(家)의 공연예술사적 업적 재조명” 학술 세미나	충남 서산 서늘
2016.3.24	중고제 맥 잇기 학술 세미나	충남 홍성
2017.6.10	제1회 대한민국 중고제 소리 경연 대회 및 “중고제의 원류를 찾아서” 학술 세미나	충북 진천
2017.11.7	제1회 서산 중고제 소리 발표회	충남 서산
2018.5.17	제1회 중고제 소리 연합회	충남 부여
2018.8.10	제1차 학술대회 “판소리 중고제의 위상과 실상”	대전
2018.11.29	중고제 전통가무악의 재발견 행사 가무악 공연 및 학술 세미나	충남 서산

이러한 전통예술에 대한 학계의 고증과 해석에 주목할 부분은 고증과 복원의 결과가 판소리 분야의 다양성을 높고 있다는 점이다. 심정순 일가의 판소리 중고제는 지역에서 전승되는 다른 여러 장르의 음악과 더불어 지역을 넘어 한국전통음악의 다양성을 높이는 내포제 소리 문화로 소개되었으며 연결성을 띠고 있다.

표 5. 심화영과 중고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

일시	방송명	매체
1996.9.25	대전MBC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	Radio
2002.9.22	KBS 국악한마당 - “춘향가 중 이도령 장한루 나들이” 소리 심화영	TV
2003.3.8	KBS-1 공사 창립 30주년 HDTV 특별기획 5부작 소리 제3편 <심화영, 잊혀진 가문의 마지막 중고제>	TV
2008.7.	광주MBC HD영상기록 한민족의 소리 <심화영의 소리>	TV
2017.2.16	KBS-1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중고제 마지막 예인, 심화영을 잇다>	TV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소리길>은 전통음악 연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판소리 중고제와 심화영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중고제와 심씨 일가에 관한 후속 연구와 후속 방송

프로그램들이 이어지면서 80대 후반의 나이에 심화영이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숨은 명인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리길>에 출연한 전통음악연구자들은 고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심정순 일가를 국악 예인의 차원을 넘어서, 학문적 연구의 영역으로 이끄는 길을 열었다. 그동안 판소리가 서편제와 동편제로 양분되어 정형화 되는 구도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중고제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원과 전승으로 연결되어 전통문화 예술 분야에 다양성을 불어오는 역할을 수행 했다는 함의를 가진다.

## V. 결론

라디오 다큐멘터리 <서산 심씨 집안의 소리길>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이다. 라디오 매체는 소리저장성, 기록물, 고증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라디오 매체가 소리저장 매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라지는 소리, 중고제를 기록하는 양식의 특성으로는 라디오 다큐멘터리의 요소인 음향, 내레이션, 드라마적 재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음향을 통해서는, 1920년 대 심매향의 소리가 녹음된 유성기음반, 1960년 대 녹음된 심상건의 소리, 1996년 녹음된 심화영의 소리가 하나로 엮여져 중고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내레이션을 통해서는, 심정순-심상건-심재덕-심매향-심화영까지 심씨 일가 전체를 잇는 혈연적 가계도를 선명하게 담아내어 복원하고 있다. 이는 내레이션이 이루어낸 '서사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드라마적 재연을 통해서는, 1910년 대 심정순의 대중적 인기를 현재화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절된 판소리 중고제의 복원과 전승을 시도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라디오 매체가 가진 고유한 소리저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라디오 매체가 특정 인물의 육성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기록물로서 그 기능을 맡고 있다. 구술사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

려와 심정순의 유일한 혈육인 심화영의 구술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통문화예술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판명되었던 판소리 중고제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 그 실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보존적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로 남게 되었다.

셋째,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라디오 매체가 판소리 중고제를 고증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통음악연구자들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판소리 중고제와 심화영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 중고제 복원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심정순 일가를 국악 예인의 차원을 넘어서 학문적 연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1996년에 심정순 일가에 집중하는 대규모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이 해에 전국적으로 열린 국악 관련 학술대회가 총 7회[44]에 불과한 것을 봤을 때 심정순 일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학계의 후속 연구와 방송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80대 후반, 만년의 나이에 심화영은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발판이 되었다.

표 6. <소리길>의 기능적 요소와 구성 특성 및 영향

특성	구성	전달방식 및 후속 영향
소리저장	-심상건, 심정순 심매향의 소리 -가계도를 잇는 육성 증언 정리	-유성기 음반자료 -음악 -내레이션
기록	-중고제의 실체 -시연 증언과 녹취	-구술사 인터뷰, -시창
고증	-학계 전문가 인터뷰	-내레이션 첨가 -신문자료 재연
전승	-학계 및 국악계 후속 활동 촉구 -내레이션, 전문가 그룹의 의견 개진	-학계의 다양한 연구와 세미나 -중고제로 지방 문화제 지정

전통문화예술 차원에서 중고제의 전승과 복원은 국악계에서도 여전히 미완의 진행형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라디오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재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형의 문화유산인 판소리 중고제라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춰 살펴 본 것이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일정한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라디오

매체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심화영의 소리(육성)는 과거의 시간으로 향해 1960년대 심상건과 1920년대 심매향을 지나서, 1910년대 심정순이라는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현재로 소환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매체가 이어주는 학술적 연구와 국악계의 전승 노력에 의해 판소리 중고제의 판소리가 멈추지 않고 '시간성의 이어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판소리의 대중성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판소리개발 콘텐츠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45]는 것을 시사한다.

격변하는 뉴미디어시대임에도 라디오는 태생적으로 소리의 매체이며 그 특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라디오의 소리저장성과 기록성에 대한 매체 특성은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디오 프로그램이 전통문화의 기록과 보존·전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계속되어 미처 밝히지 못한 다양한 각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박주연, "디지털 시대 국내 지상파 라디오의 포맷 특성에 대한 제작자 인식 연구: 심층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2권, 제3호, pp.32-34, 2011.
- [2] 동아일보, "안방으로 파고드는 오락프로의 대중(大宗) 연속(連續) 방송극(放送劇)," 1971.1.30.
- [3] 주창윤, "1960년 전후 라디오 문화의 형성 과정,"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9권, 제2호, p.37, 2011.
- [4] 최순희, "온라인 공동체 미디어 연구-대덕밸리 라디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39-59, 2017.
- [5] 고지현, "발터 벤야민의 기술매체론-라디오 작업과 계몽구상," 人文科學, 제113집, p.250, 2018.
- [6] 최미진, "한국 라디오서사의 갈래 연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40집, pp.172-173, 2008.
- [7]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의 분석과 전망: 방송을 중심으로," kocca 연구보고서, 제11권, 제20호, pp.20-23, 2011.
- [8] The New York Times, "Radio Listeners in Pannic, Taking War Drama as Fact," MONDAY, 1938.10.31.
- [9] 최혜경, "텔레비전 드라마 내레이션의 개념과 범주," 인문콘텐츠, 제47호, p.163, 2017. 재인용
- [10] 이상훈, 최일도, "라디오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연구: 제작형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일반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제16권, 제5호, p.94, 2005.
- [11] 동아일보, "라디오 大會盛況(대회성황) 開城支局主催(개성지국주최)," 1927.2.9.
- [12] 동아일보, "라디오 청취자동계(聽取者統計)," 1931.6.23.
- [13] 우수진, "미디어극장의 시대, 유성기와 라디오," 한국학연구, 제34집, pp.157-158, 2014.
- [14] 권경아, 이제혁, 진승식, "시청각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124, 2011.
- [15] <http://heritage.unesco.or.kr/mows/radio-broadcast-of-the-philippine-people-power-revolution/>
- [16] 윤택림, "구술사 연구방법론," 한국행정학회학술발표논문집, Vol.2009, No.6, p.64, 2009.
- [17] 기미양, "구술생애사에서 본 송옥자의 <문경아리랑>재현," 구술사연구, 제2권, 제2호, p.14, 2011.
- [18] 박지애,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향유된 시조의 양상과 특징," 시조학논총, 제44권, pp.19-20, 2016.
- [19] 이유진, "동아방송 판소리 녹음의 보존 현황 및 활용 방안," 판소리연구, 제38집, pp.109-100, 2014.
- [20] [http://dbs.donga.com/comm/view.php?r\\_id=04629&r\\_serial=02](http://dbs.donga.com/comm/view.php?r_id=04629&r_serial=02), 2018.9.20.
- [21] 동아일보, "東亞放送(동아방송)의 새 民俗(민속)프로 판소리連續劇(연속극) 人氣(인기)," 1976.2.14.
- [22] <http://heritage.unesco.or.kr/mows/historic-ethnographic-recordings-1898-1951-at-the-british-library/>, 2018.9.30.

[23] 남수, *영상구조와 프레젠텐스 연구-다큐멘터리 <미완의 무위정사>와 영화 <순지>를 중심으로*, 성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2009.

[24] 이희중, 나미수, “방송의 디지털화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의 변화-생산자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9호, p.298, 2014.

[25] 정숙, *방송 콘텐츠 스토리텔링2 구성·예능·다큐와 라디오 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p.187, 2014.

[26] 미하엘 할러, *인터뷰 저널리스트를 위한 핸드북*, 커뮤니케이션북스, pp.35-373, 2008.

[27] 고혜림, 김미라, *방송구성작가가 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p.117, 2007.

[28] 최혜진, “충청지역 중고제 판소리의 역사성과 지역성,” *판소리연구*, 제32집, pp.323-336, 2011.

[29] 배연형, “판소리 中古制 再論,” 2018년 어문연구학회·중고제판소리문화진흥회 공동 학술대회, pp.49-71, 2018.

[30] 배연형, “판소리 중고제론,” *판소리연구*, 제5집, p.186, 1994.

[31] 정출현, “판소리 담당층의 변화에 따른 19세기 판소리사의 중고제의 소멸,” *민족문화연구*, 제31권, p.301, 1998.

[32] 이보형, “유파 개념의 중고제와 약조 개념의 중고제,” *판소리연구*, 제23집, p.356, 2007.

[33] 송혜진, “현대 국악, 그 원형성과 변화·생성,” *한국음악문화연구*, 제6권, p.29, 2015.

[34] 신은주, “심상건과 심화영의 가야금병창 <백구타령> 비교연구,” *한국음악학*, 제22권, pp.109-113, 2012.

[35] 송혜진, “숨겨진 음악인의 발길을 따라-가야금 병창 명인 심정순,” *음악동아*, 제5월호, pp.182-188, 1988.

[36] 성기숙, “심정순가(家) 전통예인들의 무용활동 연구,” *대한무용학회*, 제71권, 제5호, p.80, 2013.

[37] 성기련, “이보형의 판소리 현지조사와 연구 성과의 분석적 고찰,” 2018 토대연구 학술회의 이보형

民俗學 Odyssey, pp.44-45, 2018.

[38] 성기련, “이보형 채록 판소리 자료의 연구사적 가치 및 특징-1969년에서 1990년까지의 채록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59집, p.85, 2016.

[39] 서종문, 김석배, “중고제 판소리의 역사적 이해,” *국어교육연구*, 제24집, 1992.

[40] 김혜정, “중고제 판소리 음악적 특징과 위상,” 2017년 중고제 학술세미나, p.45, 2017.

[41] 신은주, “심정순 일가의 소리와 내포제 문화,” *한국학연구*, 제35호, pp.78-113, 2010.

[42] 권도희, “심정순의 가야금 산조,” *국악원논문집*, 제35집, p.8, 2017.

[43] 최혜진, “심정순 창본 <홍보가>의 판소리적 특징과 의미,” *비교민속학*, 제52호, 제2호, p.177, 2013.

[44] 송혜진, “96년도 국악관련 논저 및 학술활동 분석,” *國樂年監 1996년*, 서울: 국립국악원, p.275, 1997.

[45] 김예진, “대중적인 판소리 콘텐츠의 개발 필요성에 관한 인식 조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17권, 제7호, pp.600-609, 2017.

#### 저 자 소 개

최 순 희(SoonHee Choi)

정희원



- 1986년 7월 ~ 2008년 9월 : MBC R/TV프로듀서(TV제작부장)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언론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조교수

<관심분야> : 방송제작, 양방향 방송, 광고, 언론법제